

제 44 호

연중제 26 주일  
(복자 외부 행사)

1973. 9. 30

# 숲 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 [강 료]



## 성 프란치스코 오상(傷)의 정신

합 승 천 신부

10월 4일 성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이하여 그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신 성 프란치스코회의 특수성은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못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결과로 나온 겸손, 순진, 진실성, 준비정신, 위선을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함과 영육간의 완전한 조화이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충실한 복음 삼덕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성인은, 예수님의 완덕을 따르는 것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론에 따른 행동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제 산다고 말했다.

성인은, 모든 하느님의 창조물에서 하느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고, 그는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하느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기도하시며,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항상 십자가의 신비였으며, 복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과 오상 성인 정신의 보람된 결과는 참된 기쁨입니다. 성인은 항상 기쁨에 찬 생활을 하시며, 자연계에 나타나는 자연의 미에서 기쁨을 맛보고, 신의 아름다운 창조에서도, 새들의 노래를 들을 때에도 하느님의 능력을 찬미하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랑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자에게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성인은,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시며 사람들과 하느님과 함께 참으로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도로써 아씨시의 주교와 정치가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분쟁과 시기·미움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충돌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물질적 세상에만 눈이 팔리는 그들 사이에 평화를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다.

오상 성인 정신의 또다른 하나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가난의 덕을 갖게 했고, 우리주 그리스도의 성복음을 완전하게 준행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업에 헌신을 나누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원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전 생애는 십자가 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최상의 가난과 겸덕과 고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충동 주일신부)

###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 공정한 처사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현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민수기 11; 25-29, 경향잡지 9월호 P.40)  
왜 나를 시기하느냐?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창계송**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도다.

행여 교만이 이 중을 지배할세라, 막아주소서. 그제야 나는 온전하고 크나큰 죄에서 깨끗하오리다. ◎

□**제2독서** (야고보 5; 1, 성서 P.526)

너희 재물은 썩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당신의 마음이 진리이오니 그 진리로 우리를 기록하게 하소서. 알렐루야.

□**복음**(마르코 9; 37-42, 44, 46-47, 성서 P.98)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버리라.

□**신자들의 기도**

1.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여, 당신의 용감한 증거자인 순교자들의 용덕을 기리는 성월도 오늘로 끝납니다. 그간 우리들의 정성과 정신자세는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마음 가난한 이의 위로자이신 주여,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나 텅 비었나이다. 당신의 겸손과 평화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소서. ◎

3.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여, 우리는 너무나 게을렀나이다. 내일부터 맞는 전교의 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이끌어 주시고, 전교사들에게도 더욱 용기를 주소서. ◎

+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 놓으셨으니, 이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도다.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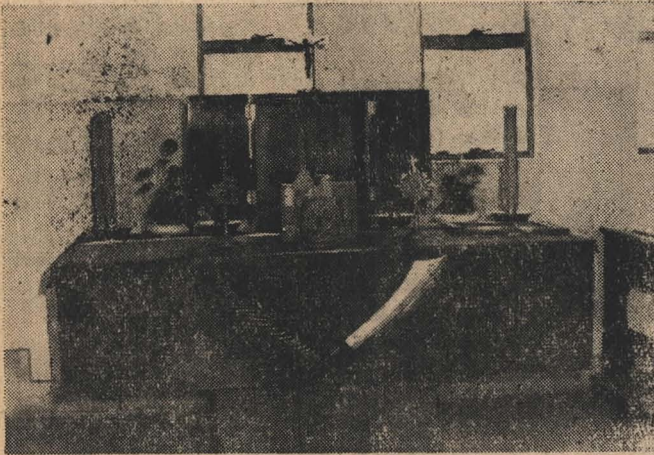
### \*이 주간의 성경\*

- 1 (월) 예수아가의 정녀 데레사, 포교 사업의 수호자  
독서 (고린토전서 7; 25-35, 성서 P.382)  
복음 (마태오 25; 1-13, 성서 P.61)
- 2 (화) 독서 (로 마 13; 11-14, 성서 P.364)  
복음 (루 가 9; 51-56, 성서 P.154)
- 3 (수) 독서 (로 마 14; 1-12, 성서 P.364)  
복음 (루 가 9; 57-62, 성서 P.154)
- 4 (목) 독서 (로 마 14; 13-23, 성서 P.365)  
복음 (루 가 10; 1-12, 성서 P.154)
- 5 (금) 독서 (로 마 15; 1-6, 성서 P.366)  
복음 (루 가 10; 13-16, 성서 P.155)
- 6 (토) 독서 (로 마 15; 7-13, 성서 P.366)  
복음 (루 가 10; 17-24, 성서 P.155)

### 우리 전주가 낳은

## 12세 소녀 아나다시아 순교 이야기

김 영 구 신부



〈복자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손선지의 유해〉

전한국 교회사에 그 유례를 두 번 볼 수 없었던 제일 나이 어린 한 아가씨의 순교, 이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 온 <작은 천사>로서, 세상 부모로는 바오로 이성삼과 아가다 김근심의 외동딸이었다. 이가 곧 가해년(1839) 대박해에 전주읍에서 온갖 혹형을 받고 영웅적으로 주를 증거한 후 그해 음 11월10일에 교살당했다.

국법에 어린아이를 공공연하게 사형시킬 수 없어 가만히 11월10일밤 자정에 교살해 버리니 이때 이봉금(鳳金) 아나다시아의 나이 12세였다.

<한국의 아녜스>라 불리는 이 봉금은 정해년(1827) 전라도 대 박해로 그 양친이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후 태어났기 때문에 순교시에 그 나이가 겨우 12세 될까말까 한 어린 동녀(童女)였다.

기해년 박해로 그 아버지는 멀리 피신하여 그 종적을 감추매, 그 어머니를 따라 광주(全南 光州)에 사는 흥쁘로다시오(洪梓榮)에 집에 피난해 살다가 거기서 온 집안 식구가 잡히는 통에 그 어머니와 함께 잡히어 전주감영에 끌려와서 6개월 동안 그 어린몸에 갖은 형벌을 다 받

고 옥중에서 가만히 교살당했던 것이다.

이 봉금은 7, 8세때 벌써 국문을 달통하여 4본문답과 조만과 기타 여러 긴 경문을 모조리 다 암송하고 10세에 첫 영성체하는 특전을 입었던 것이다.

그 때는 성교 법이 매우 엄격해서 15세 이전에는 좀체로 첫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아나다시아가 겨우 10세에 이와 같은 특권을 입은 것만 보아도 그의 영리한 모습과 뛰어난 열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가 한국 모든 치명자중 제일 나 어린 치명자라함은 국법에 의한 온갖 고문과 혹형을 받고 정식 사형 언도로 순교했기 때문이다.

일찌기 저 성암부르시오 주교는 13세난 성녀 아녜스의 순교를 예찬하기를 <이렇듯 어린몸에 그 같은 고문의 상처를 받아 드릴 곳이 어디 있었던고! 형구를 받아낼 몸은 채 못되었건만 그 형구를 이겨낼 힘은 간직했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채 알지 못했던건만 죽음을 각오하고 예비할 줄은 벌써 알았었고, 그의 목을 내리치는 회자수의 칼든 손은 멀리건만 그의 몸은 요지부동, 눈하나 깜박않고, 그 무서운 형벌중에 오직 양팔을 높이 들어 그리스도께로 몸을 향하니, 형고를 당해낼 몸은 채 못되었어도 승리를 거두기는 벌써 속성한 어른이 다 되었도다!>

이 아나다시아의 순교사실은 전라도 순교사에 누굴다 다음가는 금자탑이며, 우리나라 순교사에 제일 나 어린 순교자로서 조선의 아녜스 성녀였다.

조선 천주교회사로 수필자 다블뤼 안 주교는 이들 모녀간의 문답하는 장면이 감탄하여 증언했다.

<천당의 천신들이, 그 어머니가 딸에게 용덕의 감용함을 시험함과 그 딸이! 진실하고 열정적인 대답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즐거워 하였으랴!>고.

아! 우리 전주만이 낳은 <한국의 아녜스!>

(천주교 호남 발전사 P. 272 참조)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사 원 모 집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격-생활력이 강한 남녀

구비서류-이력서와 주민등록 초본 각 1통씩, 증명사진 1매

기 간-73. 9. 30~73. 10. 30

연 락 처-교사동 1가 417 (전화 ②4755)

전동 4가 31의2 (전북지행 앞)

자세한 것은 직접 오셔서 문의 하십시오.

주식회사 성미 유리아 남전주 지점

###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신통. 다목적 전기 술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인사드립니다.

날로 새로워 지는 오늘날, 교향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실용적으로 꾸미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코자 조그맣게 전라 종합 전자 상사를 차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옆(전 영화예식장 자리)

전화 ② 2757 조 율희(베드로) 올림

□ 순교 성월 특집 □



순교자의 믿음

바로틀로메오

「스스로 선택한 그들의 응답

이 응답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느님과 그들이 맺은 우정은 영원한 것이다」

간혹 생각하지도 않던 「선물」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때 그 선물이 주는 느낌은 크다. 휘둥그레 쳐다보며, 만져보고, 가슴에 안아보고 흡족함을 느낀다, 그 선물이 뇌물, 혹은 영등한 이유의 것이 아니라고 믿기만 한다면, 주고 받는 둘은 한 「우정」 안에 깊이 일치하여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그 우정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서 솟아나는 행동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인간 행위의 동기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안에 「주는 이」의 현존과 메시지, 그리고 「받는 이」의 응답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물 즉, 인격의 현존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구체적 환경 안에 있는 자신을 「주는 이」에게 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우정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회개(悔改)」라 하며 「의화(義化)」의 싹이라 할 수 있겠다.

크리스찬의 신앙도 이런 평범한 「대인관계」에 있다.

크리스찬 신앙은 교리시간에 배운 대로 하느님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받아 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포함된 하느님의 현존과 메시지 자체에 크리스찬 각자가 끌리는 데서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환경에서 벌어지는 크리스찬 각자의 일상생활,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선물)을 받아드릴 때 그분의 말씀은 힘있고 각자의 태도와 행위가 결정될 수 있어 「아직 오지 않은 세계(Eschatalogical)」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용기가 지 않게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들이다. 「무엇을 위하여」 혹은 「무엇을 거슬러」 항상 말씀하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격 전체의 응답이 아니고서야 감히 용기가 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찬 각자의 마음과 기억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인격 전체에게 초자연적 가능성, 미완성의 세계를 향하여 호소하시며 그들의 자유로운 응답을 기다리신다.

순교자들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느님과의 「우정」은 영원한 것이다.

요십이 (11) 김병오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498)

- 10월 2일(화) - 8시 성경교실
- 4일(목) - 8시 지성인 교리
- 5일(금) - 8시 페크레이션 - 주최; 가톨릭센터와 JOC
- 외국 문화교실; English Conversation
- 매주; 화, 금 7시
- 독어; Heiderose; 화, 목 6시
- Morgentau; 월, 수 6시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프랑스 제과**

\* **입금님 찾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제과 5011 찾집 5013  
김원준(야고버)

\* 단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 T V  
                  { 냉 장 고  
                  { 석 유 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8121  
여요셀(윤창)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오거리동, 동아서관 앞  
전화 6094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프란치스코회 제3회

- ① 제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중앙·복자·덕진) 창립총회, 피정, 착복·허원식 (10월 4일 9시-오후 5시)  
글라라회에서 분리된 4개월만에 교구장 인준과 한국 연합회 승인을 얻어서 갖는 창립 총회 끝에 다과회도 있습니다. (수도복·도시락 지참)
- ② 심의회 (10월 3일 오전 10시, 중앙성당)
- ③ 착복·허원 수련자 교육 (9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2. 교회 모지 작업비(매장) 인상

모지 관리 위원회에서는 제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작업비를 2천원으로 인상토록 의결하여 10월 1일부터 실시하오니 배전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전 2천원)

3. 전주 공교 가톨릭 학생회 모임(다음주일 오후 2시, 뜻있는 학생의 많은 참여 바람.)

(소) (식)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치명산 참배 (오늘 오후 2시)
- 3. 부녀부 피정 (내일 오후 1시반까지 성당에 집합)
- 4. 성심 부녀회 월례회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 5. 특별 기도회 (10월 한달동안 매일 오후 6시)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냉담자 회두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바칩시다.
- 6. 미사시간 변경 (평일 저녁미사는 오후 6시)
- 7. 교무금 신입을 10월중에 (15%인상)

◎ 1974년도 사도회 임원 명단 ◎

회장 이복석 부회장 강재희, 엄경숙  
 감사 김영진, 김귀권 선교부장 정주복,  
 교육부장 전준선 재경부장 양학도,  
 사회부장 유대희 부녀부장 허옥순

☆ 김종순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0년간 본당 살림을 위해 애쓰신 김 회장님께서 가정 형편으로 부득이 사임 하셨습니다. 김 회장님의 앞날과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34,405원, 감사합니다.

※ 신년도 주일 봉헌금 예산액은 4만원입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친구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의 전원 참석바람
- 2.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주보 축일 미사 (10월 4일 오후 5시) 착복식 및 허원식 (오후 2시)
- 3. 10월 7일 있을 재속 형제회 월례회 없음.

◎ 1974년도 사도회 임원 명단 ◎

회장 조해형 부회장 박종용, 이홍재  
 선교부장 박성규, 차장 이태환, 교육부장 김성록,  
 차장 이영엽, 재경부장 박종용, 차장 박강용 사회부장 이덕남, 차장 김병주, 부녀부장 이정은, 차장 박규선, 감사 장성복, 신축위원장 김정생 고문 이태영 한수옥

□지난 주일 봉헌금 12,4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오늘 오후 2시에 치명산 참배가 있으니 각 레지오 마리아 단원은 전원 참석 바람.
- 2. 푸리아 일시 변경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 3.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4.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4. 푸른양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5,38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매일 미사후 공동 기도)
- 2. 미사시간 변경 (10월 1일 부터) 주일 오전 10시 오후 7시 평일 오후 7시
- 3. 복자 축일에 견진 받으신 196명의 용사께 축하드립니다.
- 4.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5. 푸르실로 팀화합(월요일 저녁 미사후, 조종열씨대) ◎ 1974년도 사도회 임원 명단 ◎ 회장 조성호 부회장 박흥기, 허순덕 각부 임원은 차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미 2말 9되 (누계 196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39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2시) ①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 및 본당 신부의 위촉을 받으신 분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② 안전-결산보고, 예산편성, 사도회 임원 개진
- 2. 견진 받은 용사께 축하드립니다. (상관 90명, 본당126명)
- 3. 미사시간 변경 (내일부터) ① 아침-6시반, 저녁-7시 ② 금주-월, 수(아침미사), 목, 금(미사없음)
- 4.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 5.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14,71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성당)
- 2. 신용조합 임시총회 (다음 주일 밤 미사후, 강당) 안전-① 이사장 선거 ② 기타
- 3. 축하합니다. (복자 축일 영세자 45명) 고정수, 권영순, 김병열, 김복진, 김선희, 김영호, 김정애, 라경숙, 라옥남, 박학철, 박혜경, 부남용, 부인숙, 서호만, 송영애, 송은주, 송진주, 심정원, 양길순, 양행님, 오형애, 윤세원, 이기원, 위태식, 이삼순, 이상진, 이우미, 이우영, 이우직, 이정희, 이창래, 장인순, 정송남, 정영호, 정진우, 정진하, 조대너, 조미숙, 조성삼, 조애기, 조옥주, 주수열, 최미경, 최자연, 한남주 □지난 주일 봉헌금 26,320원, 감사합니다.